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6.17.(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한 지 3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발열자의 총수는 458만여 명이며, 이는 통계청 추정 북한 인구 전... 북한 전체 인구 2,537만여 명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사망자 총수는 73명입니다.

북한 발열자 수는 5월 12일 1만 8,000여 명으로 처음 보도된 이후 5월 15일 39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19일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 이후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발열자 수는 6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지속 감소하여서 6월 16일 기준 2만여 명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5월 13일 2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5월 20일 이후부터는 사망자가 1명 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중인 사람의 수도 5월 19일 75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오늘 격리치료 중인 사람은 4만 960여 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의 보도만 놓고 본다면 외형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북한 매체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6월 16일에는 전국적 판도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보도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북한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